

# 독립기념관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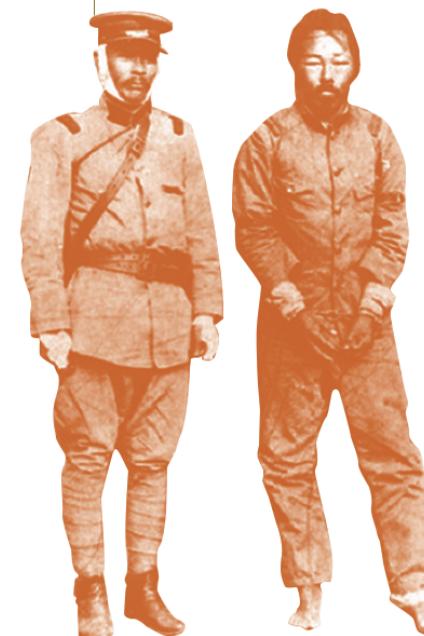
# 한국의 학살



**통아보기**  
일제가 자행한  
한인학살,  
그 만행의 진상을  
파헤치다

**만나보기**  
장암동 학살의  
참혹한 진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다

**이달의 독립운동가**  
'동제사'에 참여한  
김갑·민제호·한흥교



스탠리 마틴(Stanley H. Martin, 1890~1941)

1913년 중국 길림성 용정 제창병원 원장으로  
독립만세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사상자를 치료하고  
희생자를 위한 장례식을 개최하는 등 의료선교활동을 하였다.  
또한 병원 및 부속건물을 한인독립운동가들에게  
숙소 또는 독립운동 선전물 인쇄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였다.  
1920년 10월 장암동 등 간도학살(간도참변·경신참변)의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한인의 피해상황을 조사·촬영 후  
국제사회에 일제의 살상행위를 폭로하였다.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월간 독립기념관을 웹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독립기념관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Magazine  
2022 July Vol. 413

## 07

### 思 생각

#### 04 들어가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 06 돌아보기

일제가 자행한 한인학살,  
그 만행의 진상을 파헤치다

#### 10 만나보기

장암동 학살의 참혹한 진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다



### 人 인연

#### 14 이달의 독립운동가

중국 상하이의 최초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  
'동제사'에 참여한  
김갑·민제호·한홍교

#### 18 독립운동 사적지

동제사를 결성한 신규식의 독립운동 현장

#### 20 아름다운 인연

유관순 일가의 '대들보' 조화벽과  
영원한 '자유인' 유우석

#### 24 끝나지 않은 독립운동

사도 광산, '군함도'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 通 소통

#### 26 독립의 발자취

종교인을 넘어  
사상가이자 혁명가로서  
시대를 이끌다

#### 30 세계 산책

남아메리카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

#### 32 기념관은 지금

사진 속에 담긴 저마다의 소망

#### 36 기념관 소식

#### 38 독자 참여



www.i815.or.kr

※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독립기념관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대품)

※ 월간 「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www.i815.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간등록번호 11-8551001-000092-06  
ISSN 1227-5883  
등록일 1988년 3월 19일 천안라00001

발행일 2022년 7월 1일  
발행처 독립기념관  
발행인 한시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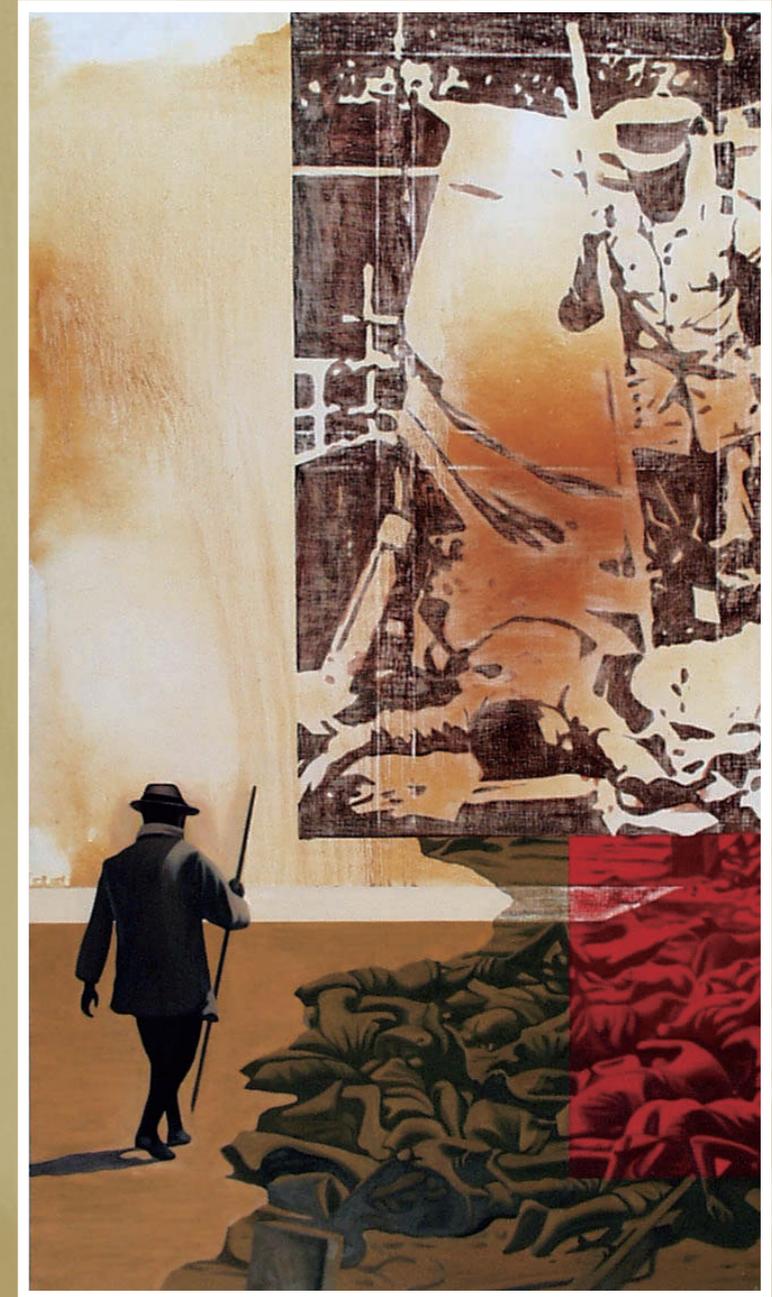
편집인 신용관  
편 집 신하윤(sunny@i815.or.kr)  
편집위원 고명재, 권동운, 김민호, 유서현, 이봉근, 이정희, 정경민,  
정현희, 홍동현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고통한 피와 눈물이 거름이 되었고  
누군가의 무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 그리고 우리가 가능했다

제노사이드(Genocide), 이른바 대량학살은 단지 많은 인간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의 멸종을 목적으로 한 대량 살육행위를 가리킨다. 일본 제국주의가 1894년 전후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한인을 대상으로 약 55년간 한반도 곳곳에서 자행한 대량·집단학살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일제가 자행한 한인학살의 대표적 사례로는 1894년 동학농민운동 시기 벌어진 농민군학살, 1895년~1900년대 초 의병전쟁 시기 곳곳에서 자행된 의병학살, 1919년 3·1운동 당시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제암리학살, 1920년 중국 연변·남만주 서간도지역에서 자행된 간도학살(또는 간도참변·경신참변), 1923년 일본 관동대지진 발생 후 수천 명이 살상당한 관동대학살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직후에 저지른 중국 하이난섬 대규모 조선인 학살사건이나 사할린 미즈호 학살사건·카미시스카 학살사건·오키나와 구메지마 학살사건 등과 같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학살사건이 있다.

일제의 학살로 희생당한 한인은 약 8백만 명에 이르며 일제강점기였던 1910년부터 1945년에 희생된 한인들만 약 5백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학살사건 대부분은 불문에 부쳐졌고 지금껏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 존재하고 있다. 참변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것과 진상규명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동대학살을 묘사한 <잃어버린 역사> 신제남(1991)

# 일제가 자행한 한인학살, 그 만행의 진상을 파헤치다



관동대지진 당시 한인학살을 묘사한 가와에 테이지 그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지 77년이 되어가지만, 일제강점기 혹은 독립전쟁기에 자행된 일제 당국이나 군경·민간인에 의한 ‘한인(조선인) 학살’ 만행의 진상은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부 외국인이나 한국인 학자들에 의해 왜곡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일제가 자행한 한인학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 일본군이 자행한 근대시기 첫 한인학살

1894년 전후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패망 전후 시기까지 약 55년간 일제 침략세력은 국내외 각지에서 한인학살 만행을 벌였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 1895년~1900년대 초 의병전쟁, 1919년 3·1운동, 1920년 10~12월 중국 연변·남만주 서간도지역의 간도참변(경신참변), 1920년 러시아 연해주 4월 참변, 1923년 9월 일본의 관동대지진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근대시기 일본군의 첫 한인학살은 1875년 9월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가 벌인 조선 연해 강화도 등 강화해협에 대한 불법 측량과 침입에서 비롯되었다. 9월 20일 운요호는 강화도 초지진에서 조선군이 공격하자 초지진에 포격을 가한 뒤 이어 영종도에도 포격을 가하고 일본군 22명을 영종도에 상륙시켜 조선군과 전투를 벌였다. 조선군이 근대식 대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을 상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일본군은 수비하던

조선군 35명을 죽이고 다수의 포와 화승총 등을 약탈하였다. 또한 일본군은 철수하면서 영종도에 설치된 영종진의 공공건물과 민가에 방화하여 큰 피해를 입혔다. 이는 한국근대사상 일본군 한인학살의 효시였다.

## 무자비하게 시행된 동학농민군 학살

신영우 교수(전 충북대)는 『1894년 일본군의 동학농민군 학살』 논문에서 일본군 보고서 『주한일본공사관기록』과 관군 기록 『순무선봉진등록』 등을 근거로 ‘일본군 책임 아래 2만 명에서 5만 명까지 이르는 많은 동학농민군이 학살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실제로 일본군 남부병참감 이토 스케요시 중좌는 동학농민군 탄압의 실질적 주역인 미나미 고시로 소좌에게 1894년 11월 19일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① 동학당은 현재 충청도 충주·괴산 및 청주 지방에 군집해 있고 그 여당(餘黨)은 전라·충청 양도 소재 각지에 출몰한다는 보고가 있으니, 그 근거지를 찾아서 이를 초절(剿絶, 무력으로 모조리 끊어 없앴)할 것.

② 조선정부의 요청에 따라 후비보병 제19대대는 다음 항에서 가리키는 3로 나누어 진군하고, 조선군과 협력해서 연도(沿道)에 소재하는 동학당의 무리를 격파, 그 화근을 초멸(剿滅, 무력으로 모조리 없애버림)해서 재흥(再興)의 후환을 남기지 않음을 요함. (중략) 다만 이번엔 동학당 진압을 위해 전후로 파견된 조선군 각 부대의 진퇴와 군수품 조달은 모두 우리 사관(士官: 장교)의 명령에 따라 하게하되, 우리 군법을 준수케 할 것이며 만일 위배하는 자가 있으면 군율에 따라 처분될 것이라고 조선정부로부터 조선군 각 부대장에게 이미 시달되어 있으니, 세 갈래 길로 이미 출발했거나, 또는 장차 출발할 조선군의 진퇴는 모두 우리 사관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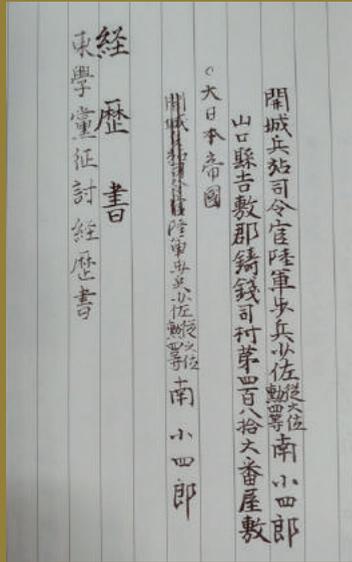
이처럼 동학농민군의 탄압은 일본군 주도로 조선군을 철저하게 ‘초절’·‘초멸’한다는 방침으로 무자비하게 시행되었다. 당시 동학농민군 탄압의 선봉장이었던 미나미 고시로는 후일 보고서에서 “많은 동학당을 죽이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다소 살벌하지만, 훗날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명령에 따르고 있다.”라고 실토하였다.

관동대지진 당시 파괴된 동경 은좌거리(일본제작 사진첩서)



운요호





미나미 고시로가 동학농민군 학살 집행 내용을 기록한 「동학당정토(東學黨征討) 경력서」. 박용규 제공

### 3단계 시기로 구분하는 의병 학살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본군의 의병 학살은 대체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러일전쟁 이후부터 1908년 상반기까지이다. 1906년 5월부터 의병 학살이 시작되어 1908년 6월까지 약 2년간 통계상으로는 의병 11,419명이 학살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07년 8월 군대해산 직후 의병전쟁이 격화하면서 일본군의 학살에 비례하여 의병들의 희생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두 번째는 1908년 하반기 이후부터 1910년 8월 대한제국의 멸망 전후 시기이다.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일본군은 주로 호남지역을 대상으로 소위 '남한대토벌작전'이란 대규모 탄압을 전개하여 의병과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세 번째는 1910년 일제강점기 이후로 일본군 수비대가 종전의 분대 중심에서 소대·중대 중심으로 배치되고, '토벌'보다는 '일상적 감시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1910년대에 헌병경찰제도가 시행되면서 식민지 무단통치 체제가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일본군과 지속적·대규모 전투가 이루어져 많은 의병 희생자가 나온 시기는 1907년 8월 이후의 후기의병 시기로, 이때 일본군이 집중적으로 의병 학살을 자행하였다. 일본군이 나중에 정리한 『조선폭도토벌지』 통계를 보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의병 17,779명이 희생된 데 반해 일본군측 피해는 136명에 불과하였다. 특히 이 통계를 보면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일본군과의

〈홍주성 수복〉 민족기록화 정리석(1975)



### 군사적 침략을 위해 감행된 의병 학살

1904년 러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한반도에 대한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는 종전에 개항장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 군대 파견과는 달리 한반도에 대한 전면적 군사지배의 실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일본군보다는 오히려 관군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전기의병 때와 달리 러일전쟁 이후의 의병들은 일본군과 전면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06년 중반 충청남도 홍주의병의 봉기는 일본군과 대규모 접전을 벌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일본군은 1906년 5월 19일 1,200여 명의 의병들이 점령한 충청남도 홍주성(지금의 홍성)을 5월 31일 새벽에 기습하여 빼앗았다. 이를 홍주성전투라 부른다. 이후 일본군은 6월 7~9일 경까지 무자비한 의병 수색과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병 300명이 학살된 것으로 파악된다. 홍주성전투 직후 부임한 군수 윤시영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의병 시신 83구를 매장했고, 또 목이 잘린 시신 15구를 찾아내 6월 8일 매장하였다. 사상자가 몇백 명인지 알 수 없으며, 사방 수십리 지경 안에는 인적이 끊기고 잡힌 사람이 160여 명인데, 모두 차례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들으니 심히 참혹하였다.” 또한, 이 전투에 참가한 의병장 유준근은 후일 『마도일기(馬島日記)』에서 ‘의병 300여 명이 전사했다’고 기록하였다.

전투에서 희생된 사망자(전사자)와 부상자 숫자를 비교해보면 부상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훨씬 많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 전투나 전쟁 사상자 숫자와 비교해보면 매우 비정상적인 것으로, 일본군이 의병들을 학살했음을 실증하는 통계이다. 이 밖에도 너무나 많은 학살과 만행 사례가 있지만, 지속적이며 장기적 차원에서 조사·연구·교육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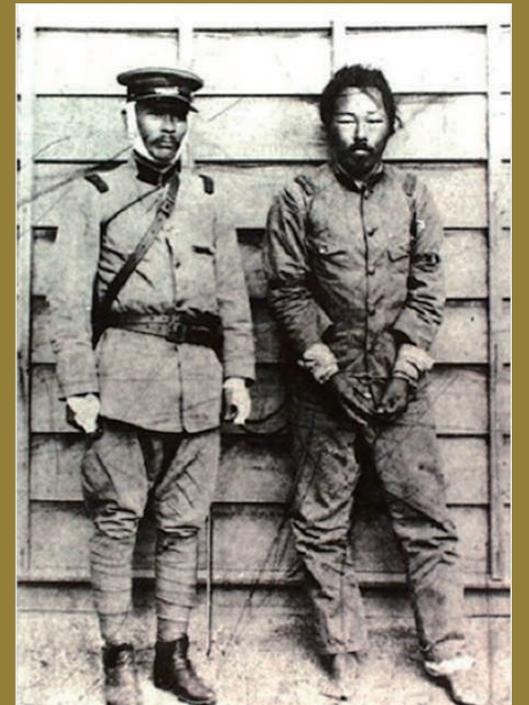
### 넋을 달래기 위하여 남아있는 과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일제 당국과 군경·민간인들에 의한 한인학살과 살상 등의 만행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할린 미즈호 마을’과 ‘가미시카 경찰서의 학살사건’, ‘오키나와의 구메지마 학살사건’ 등은 1945년 8월 15일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우리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며, 가슴을 아프게 한다. 이렇듯 일본 점령지와 한인 강제동원 지역 등에서 더 많은 학살 사례를 조사·규명하여 억울하게 숨겨진 한인들의 넋을 달래야 할 것이다. 지난 2019년 8월 초에 방송된 KBS-1TV의 특집 다큐 〈사할린, 광복은 오지 않았다〉를 취재한 이정훈 기자는 당시 취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공식 보고서조차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당초 사할린 미즈호 마을 학살사건 희생자는 27명으로 알려졌는데, 소련군 재판기록을 확인해보니 35명가량 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정한 한일우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침탈과 각종 만행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립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산·제고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 우익세력의 학살만행 부정을 비판할 필요가 있다. 또 추후 국내외의 새로운 자료를 발굴·활용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한국침략과 강점기간에 자행된 대학살을 세계적·보편적 관점인 ‘제노사이드(Genocide, 대량학살)’의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그 진상을 널리 전파할 필요가 있다.



서울 마포에서 자행된 일본군의 김성삼·이춘근·안순서 의병 학살(1904.9.21)



평남 성천에서 체포된 최후의 조선의병장 채응인(1915.7)

진정한 한일우호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과거 일본 제국주의 침략세력의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침탈과 각종 만행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 사실 정립과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산·제고가 필요하다.

## 장암동 학살의 참혹한 진상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다

일본군은 1920년 8월 소위 '간도지방 불령선인(不逞鮮人) 초토(剿討)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10월 '훈춘사건'을 조작하여 소위 '간도출병'을 단행하였다. 이에 맞서 독립군의 '청산리 독립전쟁'이 전개되었다. 독립군에게 큰 피해를 입은 일본군은 결국 독립군 추적에 실패하고 난 뒤 1921년 5월까지 북간도 및 서간도 지방에서 대대적 학살만행을 저질렀다. 이를 '간도학살(경신참변, 간도참변)'이라고 한다. 당시 일제가 자행한 간도학살을 직접 목격한 의료선교사 스탠리 마틴은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촬영한 뒤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폭로하였다.

### 일본군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행

강덕상·가지무라 히데키 편, 『현대사자료 28(조선 4)』(도쿄 미스즈서방, 1972)에는 '1920년 가을 중국 연변지역(북간도)에 출동한 일본군 제28여단이 이 지역에서 조선인 522명을 죽이고 조선인 가옥 534채를 불태웠는데, 재산 피해액은 66,850엔(원)으로 추정된다'는 통계를 낸 기록이 실려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일본 군경의 천인공노할 만행에 의한 참혹한 탄압사례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독립운동 후원이나 주도 혐의자를 총살하거나 전투 중이거나 도주한 자를 사살하였고, 군자금 모집이나 독립운동 혐의자를 참살(목을 베는 것) 및 자살(총칼로 찔러 죽이는 것)하였다. 또한 타살·고문·생매장·방화·약탈·강간 등 극히 잔인한 방법이 모두 동원되었다. 연길현 구사하에서 피난간 창동학교 교사 정기선을 체포하여 얼굴가죽을 벗겨내고 눈알을 빼서 서씨집 가족과 함께 묶은 뒤 집에 가두어놓고 불을 질러 태워 죽인 사례만 보아도 일제가 얼마나 참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하였는지 알 수 있다.



스탠리 마틴

간도학살에 희생된 동포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



### 장암동 학살을 알린 스탠리 마틴

이 무렵 '제2의 제암리 학살사건'이라 할 수 있는 장암동 학살사건이 일어나 많은 내외국인을 놀라게 하였다.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 제암리 학살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조사하고 사진을 찍어 국내외에 널리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있었듯이, 1920년 10월 말의 중국 길림성 용정 장암동 학살사건 역시 당시 연변지역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스탠리 마틴(Stanley H. Martin, 1890~1941)에 의해 진상의 일부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캐나다인 장로교 선교사였던 마틴은 장암동참변 현장을 목격한 뒤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참혹한 진상을 널리 알렸다.

"10월 31일, 우리들은 찬랍과위촌(贊拉巴威村, 장암동을 가리킴)에 사실을 알아보러 갔다.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10월) 29일 새벽에 무장한 (일본군) 보병 한 부대는 이 기독교 마을을 포위하고 산적한 밀짚 위에 방화하며, 남자라면 노인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집밖으로 끌어내어 다 사살하고, 채 죽지 않은 자는 불속에 집어넣고, 집안에서 울면서 이 비참한 광경을 보는 사자(死者)의 어머니와 처자의 가옥을 또 불질러 전 마을이 불타고 말았다. (중략) 잿더미 속에는 시체가 즐비하여서 우리들은 이 잿더미를 헤치고 노인의 시신을 보았는데, 몸에는 총탄자국이 여러군데 있고 몸은 벌써 다 타버리고 간신히 목만 붙어 있었다. 우리는 사진을 몇장 찍고 다른 데로 갔는데, 방화한 지 36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체타는 악취가 나고 지붕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중략) 내가 알고 있는 36개 촌에서만 피살자가 모두 140명이었다."

이 사건 직후 일제 군부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참상 폭로와 국내외 각지 전파를 우려하여, 중국 지방 관헌이나 연변의 용정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일본군의 학살을 변명하는 각서를 보내거나 무마하는 후안무치한 조치를 단행하는 등 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하기에 급급한 추태를 보였다. 그러한 내용은 '사이토 대좌에게 보내는 길림독군공서 공함 제288호' 및 '미즈마치 대좌가 용정촌 외국인 선교사에게 보내는 각서', 『조선군사령부 간도출병사』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는 1920년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국 동북의 북간도와 서간도 일대에서 피살 3,469명(이

중 북간도 2,626명, 서간도 843명), 피체 170명·강간 71명·민가 전소 3,209건·학교 전소 36건·교회당 전소 36건·곡물 전소 5만 4,045석의 피해가 있었다고 집계하여 발표하였다(『독립신문』 87호, 1920.12.18). 그러나 일본군은 사실 494명·체포 707명으로 축소보고 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피살 324명·재산피해 100만 원가량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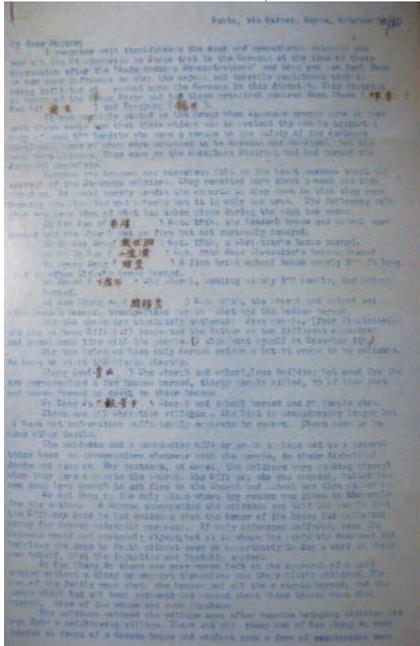


대대적 한인학살이 벌어졌던 장암동



일제의 간도학살 만행을 보도한 미국 신문기사 『시카고 데일리』(1920.12.11)

당시 용정에 있던 푸트(W.R.Foote) 목사가 장암동 학살의 참변을 외부에 알리는 영문 편지(1920.10.30.)



제창병원에서 진료 중인 스탠리 마틴



결국 일제 군경은 이러한 만행으로 한인사회를 초토화하여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없애는 데 일시적으로 성공한 듯 했다. 간도학살 후 일제의 무력탄압이 강화되면서 친일세력이 확산되고 일제 측의 한인 지배정책이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한인들의 저항과 민족운동은 줄기차게 지속되어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괴롭혔다.

스탠리 마틴의 업적을 기린다

스탠리 마틴은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세인트존스에서 태어났다. 1916년 6월 온타리오에 있는 퀸즈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캐나다 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되었다. 같은 해 중국 길림성 용정에서 제창(濟昌)병원 원장으로 의료선교 활동을 시작했다.

1919년 3월 13일 용정에서 펼쳐진 독립만세운동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이들을 제창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고, 희생자들을 위해 장례를 치러줬다. 또 병원 및 부속 건물을 독립운동가들의 피신처 및 독립운동 선전물 인쇄장소 등으로 제공했다. 1920년 10월 말 북간도 간도학살 피해 지역을 방문해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조사·촬영했으며,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는 예배를 열고 조의금을 전달했다. 더불어 보고서를 작성해서 캐나다 토론토시 장로교 전도본부에 전달하고, 토론토 그로브지에 보도하게 하는 등 일본제국주의 세력의 살상행위 등 만행을 국제사회에 폭로하였다.

1927년 3월까지 제창병원장으로 재직하다가 서울 세브란스의전 흉부내과(호흡기 내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1928년 최동·이용설 교수와 함께 한국 최초의 항결핵회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활동하며 결핵 치료와 계몽활동에 노력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이듬해에 캐나다로 돌아간 후 1941년 심근경색으로 타계했다. 그의 외아들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9월 전사하고 말았다. 딸 마가렛 무어 역시 휴전 직후 남편과 함께 한국에 와서 1984년 귀국할 때까지 극작가 겸 연출가로 선교와 계몽에 많은 공을 세웠다. 1968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을 기리며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일제 만행의 잔혹성과 아만성을 어떻게 해석·평가할 것인가

일제의 각종 만행과 학살을 단순히 일본인들의 잔인한 민족성으로 봐야하는가, 아니면 전쟁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 혹은 일본인들의 한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나 인종적 편견,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오

1919년 3·1운동 당시 수원 계암리 학살사건 현장을 직접 답사·조사하고 사진을 찍어 국내외에 널리 알린 스코필드 박사가 있었듯이, 1920년 10월 말의 장암동 학살사건 역시 당시 연변지역에서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스탠리 마틴에 의해 진상의 일부가 국내외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학살 현장에 세워진 장암동 참안 유지 기념비

던 조선·조선인 멸시관 등으로 봐야할까. 일제 당국과 조선총독부의 차별·억압·수탈정책, 1931년 9월의 만주사변(9·18사변)과 중국 동북지방 침략, 1937년 중일전쟁 도발, 1941년 12월의 아시아태평양 전쟁 도발 등으로 연속되는 전쟁 상황 즉 특수한 상황이라는 외부적·국제적 요인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다른 요인은 없었을까.

미국의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는 『국화와 칼 - 일본문화의 틀』(울음문화사, 2019)에서 일본인의 민족성을 위계서열 의식, 은혜와 보은, 그리고 의리에 대한 독특한 도덕 체계, 죄와 악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대신 수치심을 기본으로 하는 일본의 문화 체계로 설명하였다. 손에는 아름다운 국화, 허리에는 차가운 칼을 찬 이종성의 일본인으로 결론지었다. 물론 이러한 미국학자의 평가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일제의 한인학살 만행 등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 배경과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만한 의견이다.

앞으로 일제강점기 및 그 전후시기에 자행된 일본 군경 및 기관·단체·민간인 차원에서 다양한 한인학살 관련 자료 발굴 및 증언 채록을 해야하며, 한국정부 및 민간차원에서의 적극적 조사·연구·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중·일·러·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야하며, 학계의 공동연구 및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희생자 추모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중국 상하이의 최초 한국인 독립운동 단체 '동제사'에 참여한 김갑·민제호·한흥교



김갑(金甲)  
1889~1933  
독립장(1986)



민제호(閔濟鎬)  
1890~1932  
애국장(1990)



한흥교(韓興敎)  
1885~1967  
애국장(1990)



당시 상하이의 와이탄(外灘) 전경

## 신규식을 중심으로 조직된 동제사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독립운동가들은 국외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1912년 중국 상하이에서 신규식을 중심으로 박은식·신채호·조소앙·김규식 등은 독립운동 뜻을 함께하며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였다. 상하이 최초 독립운동 단체 동제사는 중국혁명인사들과 교류하며 신아동제사(新亞同濟社)를 결성하기도 하고, 상하이의 한국유학생들을 위해 박달학원(博達學院)을 세워 청년교육에 앞장섰다. 이후 동제사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임시정부의 여러 직책을 역임하거나 지원하면서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신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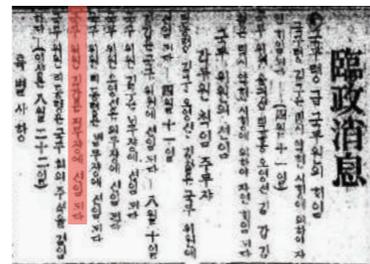
「동제사 창립 취지문」, 1914 독립기념관 소장



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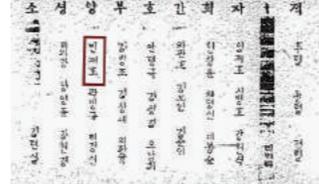
김갑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장에 선임됨을 알리는 기사, 「임정소식」, 『신한민보』, 1927.12.22



“세계가 멸망하지 않는 한 동제는 영원하리니  
우리가 동제를 버리고 누구와 함께 돌아가겠는가  
천하에 가득한 우리 동지들이여!”  
「동제사 창립 취지문」 중, 1914

##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헌신한 김갑

김갑은 1889년 부산 동래에서 출생하였고 본명은 김진원(金鎭源)이다. 경상도 지역의 첫 비밀결사인 대동청년단에 참여하였던 그는 상하이로 망명 후 동제사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 프랑스 조계에 수립되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경상도 대표의원(19년)·노동총판(25년)·재무장(27년) 등을 역임하며 독립운동을 이어 나갔다. 1930년에는 김구·조완구·엄항섭·이시영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 창당에 참여하여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그는 1933년 44세의 젊은 나이로 서거하는데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민장으로 애도하였다. 정부는 김갑의 공적을 기려 1986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민제호가 참여한 대한적십자회 관련 기사, 『신한민보』, 1920.4.16



민제호가 참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기사, 「선언문」, 『신한민보』, 1921.4.21

## 다방면으로 임시정부를 지원한 민제호

민제호는 1890년 서울 종로에서 출생하였고 민우명(閔禹明)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1913년 상하이로 망명한 민제호는 동제사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제2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된 그는 임시정부 운영자금을 위해 경기도 모집위원으로 참여하였다. 1919년부터 1929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며 대한적십자회·상하이 대한인 거류민단을 통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일제의 탄압을 피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피신하였다. 그러던 중 병을 얻어 1932년 42세의 나이로 항저우에서 서거하였다. 정부는 민제호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의료활동으로 독립운동을 펼친 한흥교

한흥교는 1885년 부산에서 출생하였고 한진산(韓震山, 韓辰山) 또는 한생(恨生)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그는 일본 오카야마(岡山) 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1911년 상하이로 망명하였다. 신해혁명에 적극 참여하던 한흥교는 중화민국 육군 군의정(軍醫正)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1912년 신규식·조성환 등과 함께 동제사 조직에 참여하면서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의료를 도맡았다. 1935년부터 광복될 때까지 산시성 타이위안에서 대동병원을 운영하며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와 의료활동을 이어 나간 그는 1967년 82세로 서거하였다. 정부는 한흥교의 공적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한흥교가 중국 신해혁명에서 세운 공로로 받은 훈장, 1911 한중수 소장



중국육군 군의 시절 한흥교, 한중수 소장



한흥교 가족사진(오른쪽 한흥교), 독립기념관 소장

# 동제사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한 김갑·민제호·한홍교



# 1

1910년대 당시 중국 상하이에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국제도시였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해 새로운 국제여론과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상하이로 모여들었다.

# 2

1912년 상하이에서 신규식을 중심으로 상하이 첫 한국인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를 창립하였다. 상하이에 도착한 김갑·민제호·한홍교는 독립운동을 위해 동제사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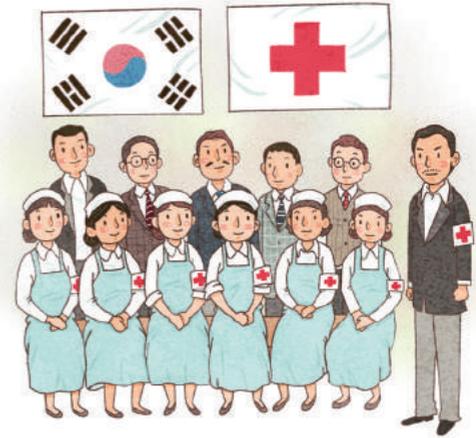
# 3

김갑은 동제사 가입 후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위원의 경상도 대표위원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임시정부의 국무원·재무장 등을 지내며 독립운동을 지속하였다.



# 4

1913년 상하이로 건너간 민제호는 동제사에 가입하였다. 1919년부터 1929년까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원을 지내며 대한적십자회와 상하이 대한인거류민단의 회원이 되어 임시정부를 지원하였다.



# 5

일본에서 의학전문대학 졸업 후 상하이로 건너간 한홍교는 동제사에 참여하였다. 이후 중국 베이징·타이위안 등에서 의료활동을 펼치며 한국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 6

1910년대 한국 독립운동의 초석을 놓은 동제사에 참가한 세 사람의 공적을 기리어 정부는 1986년 김갑에게 독립장을, 1990년 민제호와 한홍교에게 애국장에 추서하였다.



# 동제사를 결성한 신규식의

# 독립운동 현장

##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단체의 호시 동제사

동제사(同濟社)는 1912년 7월 4일, 신규식이 중국 상하이에서 조직한 최초의 한국 독립운동 단체이다. 신규식은 육군무관 출신으로 국내에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다가 1911년 3월에 상하이로 망명 후 동제사를 결성하였다. 신규식은 신해혁명에 희망을 걸고 있었다. 이후 많은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을 갈망하며 중국혁명운동의 근거지인 상하이지역으로 모여들었다. 신규식은 국내에서 계몽운동을 전개하여 명성을 떨쳤던 박은식이 만주를 거쳐 상하이로 오자 그와 더불어 애국지사를 결집하여 민족운동을 추진할 단체결성을 추진하였다.

동제사라는 명칭은 '동주공제(同舟共濟)'를 줄인 말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은 배를 타고 피안(彼岸)에 도달하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설립 목표는 국권회복에 두었다. 본부는 상하이에 두었으며, 베이징·톈진·만주 등 중국지역과 미주·일본에 지사를 두었다. 상하이로 망명하는 독립지사들이 주하는 동포 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은 점차 확대되어 명실상부한 독립운동단체로 성장하였다. 동제사는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까지 중국 내 독립지사들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신규식이 순국한 1922년 9월 이후의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1 신규식의 상하이 거주지**  
1911년 신규식이 상하이 망명 후 거주 및 활동했던 건물이다.(2016년 촬영)  
주소  
상하이 황푸구 남창로 100동 5호



국의 독립운동 사적지 찾기

## 동제사를 함께 이끈 신규식과 신건식

신규식은 1880년 2월 22일 충북 문의군 동면 계산리에서 태어났다. 1900년 9월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하여 전술학·군제학·병기학 등 다양한 신학문을 접하였다. 육군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1902년 7월 육군보병참위에 임관되어 문무를 겸비하고 근대문물과 사상을 습득하였다. 1905년 일제에 의한 을사늑결 소식에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음독자결을 시도하였고, 이 사건으로 오른쪽 시신경이 마비되고 말았다. 이후 1910년 일제에 나라를 빼앗기자 재차 음독자결을 시도했으나, 대종교 종사 나철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이듬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신정(申淸)

으로 개명하고 쑨원(孫文)이 이끄는 중국 동맹회(中國同盟會)에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가맹한 뒤 10월 무창의거에 참가하여 신해혁명에 공헌하였다. 1912년에는 동제사를 조직하여 이사장이 된 그는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법무총장으로, 그 후 다시 총리대리로 외무총장을 겸직하였다. 이후 1922년 3월에 모두 사직하고 병으로 요양하다가 9월 25일 사망하였다. 신건식은 신규식의 10살 아래 동생으로 동제사에 가입한 이래 지속해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1921년 국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압록강에서 헌병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으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1922년

병보석으로 신의주감옥에서 출소한 후 상하이로 탈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2 신규식-신건식 집터**  
당시 주소는 '충북 문의군 동면 계산리'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 신건호(인차2리 거주, 63세)의 증언에 의해 청원군 가덕면 인차리로 위치를 확정하였다.

주소  
충북 청주시 가덕면 인차리 132



**위치고증**  
'신규식 공적조서'와 '신건식 공적조서'에 기록된 본적지를 통해 위치를 확인하였다.  
국내 독립운동 사적지 찾기



# 유관순 일가의 '대들보' 조화벽과 영원한 '자유인' 유우석



1919년 4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양양 만세운동은 강원도 내에서 최대 규모로 펼쳐진 치열하고도 격렬했던 만세운동으로 기억된다. 당시 조화벽은 독립선언서 필사본을 버선 속에 감춰 양양지역 청년지도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이로써 양양 장터에서 독립을 외치는 만세함성이 크게 울려 퍼질 수 있었다. 훗날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과 결혼하여 평생 독립운동과 백성교육에 헌신한 그의 뜨거웠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조화벽과 유우석

## 조화벽, 식민지배의 모순을 인식하다

조화벽은 1895년 강원도 양양 감리교회 전도사 조영순과 어머니 전미흠 사이에 무남독녀로 태어났다. 감리교회는 1901년 10월 하디(R.A.Hardie) 선교사에 의해 강원도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영동지역은 전통적으로 유림세력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화벽은 개신교 전래에 의한 부모님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남녀동등권을 인식하였다. 곧 개방적인 가정생활과 엄격한 신앙생활은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밑거름이었다. 부모님은 신학문을 배우려는 그를 선교사들에 의해 여성교육이 일찍이 이루어지던 함경도 원산으로 유학을 보냈다.

성경학원과 루씨여학교에서 배운 다양한 교과목은 식민지배의 모순을 인식하게 하였다. 루씨여학교는 감리교 선교사들이 세운 이화·배화·송의·호수돈여학교 등과 함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명문사립학교였다. 당시 중등교육을 받은 여학생은 매우 희소한 여성지식인 집단이었다. 일제강점기 농촌계몽운동을 담은 심훈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을 묘사한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방증한다. 화벽은 개성 호수돈여학교 보통과와 고등과에서 수학하던 중 3월 3일 개성지역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향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양양 만세운동에 불을 지피다

조화벽은 호수돈여학교 비밀결사대 활동을 시작으로 항일운동에 직접 참여했다. 주요 구성원은 그를 비롯한 조속경·김정숙·이경지 등이었다. 화벽은 그중 어윤희·권애라와 함께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한편 태극기 등을 기숙사 기도실에서 만들었다. 이들은 기도회를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거리에 나섰다. 시위대는 '찬미가'와 '독립가'를 부르며 독립만세를 외쳤고, 시민들도 가세하여 시위군중은 1,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현장과 기숙사 등에서 체포된 이들은 일제 헌병대에 끌려가 상상을 초월한 고문을 받았다. 다행히 군수와 학교 당국의 설득으로 여학생 대부분은 석방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만세운동을 저지하고자 중등학교에 휴교령을 내렸고, 많은 학생



1930년대 양양 장터

들은 귀향하게 되었다. 이는 오히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이어졌다.

독립선언서 필사본을 버선에 넣은 화벽은 원산을 거쳐 양양 대포항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일제경찰은 그를 관사로 끌고 가서 심문하였으나 그의 소지품에서 다행히 독립선언서가 발견되지 않았다. 화벽은 독립선언서를 교인 김필선에게 전달하였고, 이는 양양 만세운동의 불씨가 되었다. 양양지역 만세운동은 유교세력과 기독교세력·현산학교·양양보통학교 졸업생 등이 주축이었다. 농민들은 농악대를 앞세우고 주민들 참여를 독려했다. 화벽은 목사와 교회 청년들과 여러 차례 회합을 통하여 다양한 세력의 중재·통합을 성사시켰다. 군수와 일제경찰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경계와 감시를 강화하였다. 4월 4일 양양 장날에 장꾼을 가장한 주민들은 장터로 모여들었다. 이후 9일까지 치열한 만세시위가 전개된 후 5월 9일까지 군내로 확산되었다.

## 유관순 일가와 인연을 맺다

검거선봉이 강화되는 가운데 피신한 화벽은 그해 가을 호수돈여학교 졸업 후 공주 영명여학교 교사가 되었다. 여기에서 천안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의 주역인 유관순과 그의 오빠인 유우석을 만나 영원한 만남을 시작하였다. 화벽은 당시 공주 영명여학교 교감이었던 황인식 집

에 같이 살고 있던 유관순 동생 인식과 관석을 보살피는 한편 훗날 유우석의 옥바라지도 정성을 다했다. 1923년 조화벽과 유우석은 백년가약을 맺어 부부로 탄생하였고, 이리하여 양양의 조화벽과 천안의 유관순은 올케와 시누이로 인연을 맺었다. 결혼 후 화벽은 호수돈여학교를 거쳐 원산 진성여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활동근거지를 원산으로 옮겼다.

1932년 고향 양양으로 다시 돌아간 화벽은 남편과 함께 문맹퇴치를 위해 양양교회에서 운영하던 정명학원 교사로 활동하였다. 일제가 강제로 폐교시킨 1944년까지 무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배움터를 제공했다. 식민지 노예교육에 맞선 교육활동은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높이는 든든한 기반이었다. 또한 양양부인상회 발기인 모임에서 이사로 참여하는 등 사회활동을 지속한 그는 이때 중풍으로 전신마비가 된 어머니를 12년간 지극정성으로 모시며 삼 형제를 길렀다.

**유우석, 공주 만세운동에 나서다**

유우석은 1899년 아우내장터 만세운동 주역인 유중권과 이소제 사이에 3남 2녀 중 장남으로 천안군 동면 용두리에서 태어났다. 다른 이름은 준석·관옥으로 유관순의 오빠이다. 그는 감리교회가 운영하던 장명학교를 졸업한 후 교사 김구웅의 주선으로 공주 영명학교에 재학 중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영명학교는 영명여학교와 더불어 충남지역을 대표하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였다. 공주에서는 3월 12일과 15일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에 자극 받은 영명학교 교사 김관회·이규상·현인동, 졸업생 김사현, 재학생 오익표·안성호, 목사 현석철·안창호 등은 3월 24일 밤 영명학교 사택에 모였다. 이들은 4월 1일의 공주읍 장날을 이용해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때 우석은 학생대표로서 3월 30일 영명학교 조수 김수철의 집에서 노명우·강윤·윤봉균 등과 만나 독립만세운동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튿날 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독립선언서 1,000여 매를 등사하고 대형 태극기 4개를 만들었다.

4월 1일 오후 2시 우석은 학생들과 함께 장터에서 태극



공주 영명학교 기숙사터

기와 독립선언서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고 선두에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읍내로 파급되자 여학생들도 동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일제 기마경찰은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기세였다. 우석은 노명우와 함께 말고삐를 잡아채 일제경찰을 끌어내려 발길로 걷어차 실신시켰고, 현장을 본 다른 일제경찰은 우석을 칼로 후려했다. 간수들은 시위 당시에 입은 부상으로 법정에 걸어갈 수 없던 우석을 인력거에 태워 법정에 세웠다. 공주감사국으로 송치된 그는 이때 동생 유관순을 잠시 만나기도 했다. 이후 공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형·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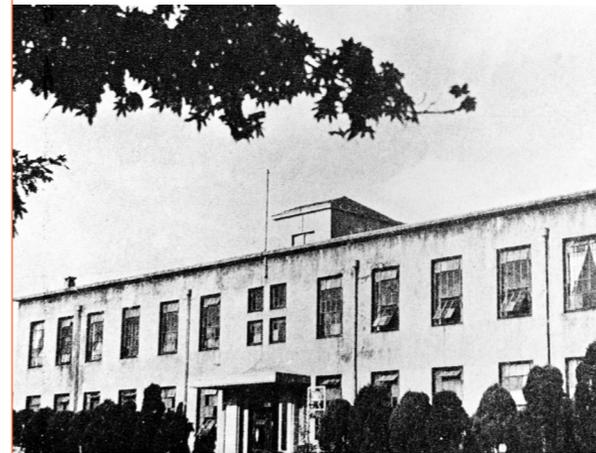
**사회운동과 사상운동을 병행하다**

유우석은 출옥 후 배재학당에 편입하였고 이어 경성법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조국수호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구금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퇴학당하여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화벽과 결혼 후 활동근거지를 강원도 양양과 함경도 원산 등지로 옮긴 그는 1926년 이항·조시원·김연창·한하연 등과 비밀결사체인 본능아연맹을 만들어 사상운동에 나섰다. 당시 공산주의 계열의 북풍회·화요회 등 각 분파는 세력 확장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주하·김삼룡·강기덕·장기욱 등이 원산과 서울을 빈번히 왕래함으로 일촉즉발할 분위기였다. 충돌의 도화선은 본능아연맹과 원산청년회 사이에 경리장부사건, 원

산여자청년회에서 개최한 강연회 내용 등에서 비롯되었다. 본능아연맹의 공격을 받은 서수학이 중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우석은 상해지사 혐의로 구속되어 함흥지방법원에서 3년 형을 선고받았고, 1928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정당방위로 판명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장기욱이 고소한 상해죄부분은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30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원산청년당 추진을 저지하려는 본능아연맹과 여러 차례의 연쇄적 충돌로 일제경찰의 개입을 초래하였다. 그는 이후 양양·강릉 등지 영동지역을 연합한 설악회를 조직해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구속되었다. 조국광복을 향한 열정은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으로 이어졌으나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다.

만세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며 읍내로 파급되자 여학생들도 동참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일제 기마경찰은 군중을 강제로 해산시키려는 기세였다. 우석은 노명우와 함께 말고삐를 잡아채 일제경찰을 끌어내려 발길로 걷어차 실신시켰고, 현장을 본 다른 일제경찰은 우석을 칼로 후려했다.

경성법학전문학교 전경(1911)



우석은 여성권의 옹호를 위한 활동에도 나섰고, 노동자 권익 향상에도 참여하는 등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또한 해상상구회 부회장으로 해상승조원의 자구책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원산의 대표적인 석산유치원이 경영난에 직면하자 후원회원으로 활동했다. 이는 어린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부가 함께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다**

광복 후에도 부부는 긴장을 놓을 수 없었다. 일본군에 징집된 아들 유제충이 돌아오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복은 이들이 바라는 방향과 달리 진행되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 지도를 펼쳐놓고 38선을 그었고, 양양도 두 토막이 나고 말았다. 이는 분단체제 고착과 더불어 이념적인 갈등을 증폭시켰다. 부부는 소련군의 박해를 받다가 결국 월남하여 서울에서 건국사업에 나섰다.

우석은 대한노동총연맹 위원장·전국혁명자총연맹 중앙집행위원·통일독립운동자 중앙협의회 간사·유도회청년회 총본부장·순국선열유족회 회장·독립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자유롭고 통일된 대한민국 건설을 바라는 그의 심정과 달리 남북분단은 우리의 가장 비극적인 한국전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유우석은 통일운동과 민주화운동을 전개하다가 1968년 5월 28일 사망했고, 동지들은 예총회관 광장에서 사회장을 거행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82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조화벽 역시 건국사업을 위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임영신·박마리아 등과 함께 여성 권익옹호에 앞장섰다. 전쟁 중 막내아들 유제인을 폐렴으로 잃은 이후 서울 성북구 정릉 미아중앙교회에서 여성교회 회장으로 봉사하다가 1975년 9월 5일 사망했다. 며느리 김정애(전 3·1여성동지회장)는 “정신보다 물질에 대한 갈급증으로 목 타는 세상에서 참사람이자 참어른인 조화벽이라는 존재가 새삼스럽다.”고 회상했다. 정부는 그의 공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다. 오늘날 조화벽은 춘천의 윤희순, 철원의 박진근과 함께 강원도의 3대 여성독립운동가로 꼽힌다.

# 사도 광산, ‘군함도’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언뜻 보기에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이면에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덮자는 의도가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시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지금껏 어떠한 사과나 반성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7년 전 일본이 히시마 탄광(일명 군함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한 것이 바로 그 일례이다.

##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지옥섬

2015년 7월 5일 일본 내 ‘근대산업사실’과 ‘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 관련 23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서구권에서 시작된 산업화가 비서구권 국가로 성공적으로 이전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이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제시기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이 운영하던 나가사키조선소·다카시마 탄광·히시마 탄광·미이케 탄광·미이케항구·야하타제철소 등이 포함된 것이 문제였다. 이 중 일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역사 왜곡의 장소이자, 한인들의 강제노동 피해 현장이었다. 유독 시선을 끄는 곳은 히시마(端島) 탄광이었다. 히시마는 나가사키 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4.5km 떨어져 있으며, 큰 야구장 두 개를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다. 회색빛 섬의 모습이 1944년 완성된 해군 전함 ‘도사(土佐)’와 닮았다고 해서 군함도(軍艦島)라는 별칭을 갖게 되었다. 1810년 석탄이 발견되고 미쓰비시 회사가 1890년에 매입하여 석탄을 채굴하면서 히시마 탄광이 비롯되었다. 태평양전쟁 당시 이곳에 끌려간 많은 한인과 전쟁 포로들은 지하 1,000m 아래 경사진 좁은 곳에서, 서로의 몸을 고무줄로 묶은 채,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이 온도 40도가 넘는 곳에서, 하루 12~18시간의 강제노역을 해야만 했다. 당시 히시마를 일컬어 ‘지옥섬’, ‘감옥섬’이라 불렀다.

## 우리 정부의 능장 대처가 가져온 결과

일본 정부가 히시마 탄광 건축물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한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08년 8월경이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나가사키시가 히시마 건축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며 근대화유산연구회를 발족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정부는 물론 언론도 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다 일본 정부가 2009년 5월 1일 히시마를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올린 뒤 2010년 3월에서야 우리 언론은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때 1980년대 ‘나가사키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모임’이 히시마 탄광에서 한인 120여 명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과 소설가 한수산이 이를 취재하여 일본어로 『군함도』라는 소설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소설 『군함도』는 2016년에서야 한국어로 번역·출판되었고 2017년 7월 영화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우리 언론이 주목했을 때는 이미 나가사키시가 히시마를 관광상품으로 판매 중이었다. 그런데 상품 안에서 어디에도 ‘태평양전쟁 당시 한인 등이 처참히 희생되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당시 국내 언론은 ‘히시마 탄광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히시마의 역사와 그곳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좀 더 고민하며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정도였다. KBS-1TV는 <역사스페셜> 프로그램에 ‘지옥의 땅, 군함도’라는 방송을 내보냈고, 간혹 일간지에 히시마 탄광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렸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2012년 7월 일본 정부가 히시마 탄광 등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자, 그제야 우리 언론은 비난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도 ‘사망 기록을 통해 본 히시마 탄광 강제동원 조선인 사망자 피해실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2012년 12월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은 2013년 9월 히시마 탄광을 비롯한 조선소와 부두

등 일본근대화의 산업 유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공식 결정하고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물론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자나 이들에 대한 가혹행위·노동착취·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내용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에 발발하며 ‘이웃 국가의 아픔과 관련 있는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것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기리는 세계문화유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뒷북을 친 거나 마찬가지였다.

## 등재를 놓고 펼친 치열한 외교전

이후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를 무대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 하지만 우리의 준비와 대응은 미흡했고 안일했다. 더욱이 일본이 10년 동안 준비하였고 유네스코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외교를 통한 대응은 역부족이었다. 이에 우리는 철회 요구 전략을 바꿔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반영하여 등재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는 등재기간을 1850년부터 1910년까지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역사에 담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2015년 7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 시설의 등재가 최종 결정되었지만, 등재 결정문에 각주 형식으로 ‘강제징용’ 사실이 명시되었다. 이를 두고 우리 정부는 전방위 외교 노력이 이뤄낸 값진 성과이고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인정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합의는 무색해지고 말았다. 또한 히시마에 마련된 전시관에는 강제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증언들로 채워졌다. 일본 정부가 201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보전상황보고서’에는 ‘강제징용’이란 내용은 없었고, ‘제2차 세계대전 기간과 그 후에 일본 산업을 지원한 한국인이 많았다’라는 상당히 왜곡된 내용이 기술되었을 뿐이었다. 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인의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배상을 거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8년 6월 개막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측에 강제노역 등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릴 것을 촉구했으나, 일본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다. 이에 2021년 7월에 열린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례적으로 경고하였다.

## 일본, 사도광산 ‘꿈수’ 등재 추진

2022년 1월 일본 정부는 니가타현 사도(佐渡) 광산을 세계유산 단독후보로 전격 추천했다. 일본 문화청 문화심의위원회가 사도 광산을 일본의 세계유산 후보로 선정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수법도 히시마 탄광 때와 비슷하게 논란을 피하고자 1860년대 이전인 에도시대 무렵으로 시기를 한정했다. 2019년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를 단행하여 한일 간에 갈등이 가시지 않았는데도 굳이 이를 추진했다는 것에 일본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일본이 사도 광산을 문화유산 잠정목록에 올려놓은 것은 2010년 11월로 10년이나 더 된 일이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와의 갈등을 우려했는지 2017년·2018년·2019년 세 번 모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단일후보에서 탈락시켰다. 2019년에 한국에서 흥행한 ‘군함도’ 영화가 한몫했던 듯 싶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등록 추진이 보류되었다. 그런데 2021년 12월 일본 문화심의회는 사도 광산 유적을 단일 후보로 선정하였다. 이때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도 일제강점기 당시 최소 1,141명의 한국인이 사도 광산에서 노역했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문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 각계각층에서 즉각 철회를 촉구했으나,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일본 극우의 입장을 받아들인 일본 정부는 2022년 1월 28일 사도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단수 추천하였다.

## 과거를 교훈삼아 등재 막아야

다시금 한일 간에 ‘역사전쟁’이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왔고, 일본지역 탄광·광산의 한국인 강제동원 실태를 조사했으며 관련 연구도 축적하였기에 예전처럼 당하지 않으리란 자신감이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당사국 간 합의, 즉 한국이 사도 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찬성하지 않으면 유네스코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그렇지만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인 일본의 외교력은 만만치 않다. 우리 국민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정부는 외교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는 ‘군함도’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



# 종교인을 넘어 사상가이자 혁명가로서 시대를 이끈다

올해는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이끈 의암 손병희 선생이 순국한 지 100주기가 된 해이다. 이를 맞이하여 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는 추모 특별전이 현재 근현대사기념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근현대사기념관 정혜살 학예사에게 전시에 관한 궁금한 이야기를 묻고 들었다.

- 1 의암 손병희 사진
- 2 손병희가 49일 수련회를 개최할 때 사용한 가마솥과 독
- 3 손병희의 낙관
- 4 손병희의 장례식 사진



### Q. 먼저 근현대사기념관을 소개해주세요.

서울 강북구에 자리한 근현대사기념관은 헌법정신의 요체인 자유·평등·민주의 이념이 단순히 외래의 소산이 아니라 선열들이 피땀 흘려 체득하고 축적해 온 소중한 가치임을 감동 이 있는 서사로 전달함으로써,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 그리고 '사월혁명의 투사들이 소원했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상임을 널리 알리고자 2016년 설립되었습니다.

### Q. 이번 전시의 기획 취지가 궁금합니다.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 의암 손병희 선생 순국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독립운동 업적과 정신을 조명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생의 일생을 조명하는 이번 전시는 종교인을 넘어 사상가이자 혁명가로서 시대를 이끌었던 선생의 참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며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시 강북구와 천도교중앙총부가 공동주최하고 국가보훈처와 동학혁명정신선양사업단 후원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 근현대사기념관이 주관하여 개최하였습니다.

### Q. 의암 손병희 선생의 업적을 소개해주세요.

손병희 선생은 호서동학군 통령으로서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으며, 3·1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서 독립운동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동학을 이어받아 천도교의 기반을 닦고 교리와 조직을 체계화하였으며, 나아가 언론·출판·교육을 통해 민족혼을 일깨우는 데 앞장섰습니다. 엄혹한 시대에 일신의 안일함보다는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진 선생의 업적은 현재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 Q. 이번 전시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유물이 있나요?

이번 전시에서는 손병희 선생이 독립운동에 대비하여 봉황각에서 7회에 걸친 49일 수련회를 할 때 사용한 가마솥과 독을 비롯한 선생의 명함·낙관 등 다수의 귀한 유품과 선생의 가족사진·장례식사진 등을 공개합니다. 또한 천도교중앙총부가 소장한 동학·천도교 경전·동학 농민군 포고문·고시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민족문제연구소·독립기념관·고려대 박물관·동덕여대박물관 등이 소장한 3·1운동 당시의 각종 선언

문과 사진 그리고 보성전문학교·동덕여학교 관련 사진과 문서 등 흥미 있는 자료들이 함께 전시됩니다.

### Q. 전시와 연계된 강좌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전시와 연계하여 <3·1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 의암 손병희>를 주제로 무료 특별강좌를 개설했습니다.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강좌는 7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총 5회)마다 근현대사기념관 2층 강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좌 신청은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www.mhmm.or.kr)와 전화(02-903-758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며, 더불어 이번 강좌뿐만 아니라 답사와 순회전시도 준비 중이오니 많은 기대 바랍니다.

### Q.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은 손병희 선생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독립을 위해 노력했던 손병희 선생의 피와 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선열들의 고귀한 유지를 받드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의암 손병희 순국 100주기 추모 특별전 <3·1운동을 이끈 민족지도자 의암 손병희>

기간 2022.6.9. ~ 9.30  
장소 근현대사기념관 기획전시실  
관람료 무료  
주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14  
문의 02.903.7580



## 손병희(孫秉熙, 1861~1922) 순국 100주기, 그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며

###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다

손병희는 1861년 4월 8일 충북 청원군에서 아버지 손두흥과 어머니 경주 최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22세 때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9월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자, 호서동학군 통령으로 임명되어 전봉준과 함께 농민군을 이끌었다.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 치른 이인전투에서는 승리하였으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우금치전투에서 패배하였다. 이후 최시형으로부터 의암(義菴)이라는 도호를 받은 그는 1897년 12월 24일 동학의 종통을 이어받아 동학 3대 교조가 되었다. 교조가 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학 재건에 노력하였다. 하지만 동학농민운동 실패 후 동학에 대한 탄압이 수그러들지 않자 세계사정을 살피고 동학교단 재건 구상을 위해 외유를 계획하였다.



1

### 천도교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치다

일본으로 망명 후 국정혁신과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갑진개혁운동을 추진하고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였다. 1906년 1월 귀국 후에는 천도교를 근대적 종단으로 쇄신 발전시켰다. 또한 일본에서 귀국할 때 인쇄시설을 들여와 천도교중앙총부 내에 인쇄소를 설치하여 출판연론운동과 민족교육운동에 힘썼다. 국내 최초의 대판형 신문인 기관지 『만세보』를 창간하는 한편 민족혼을 일깨우고 독립정신을 함양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3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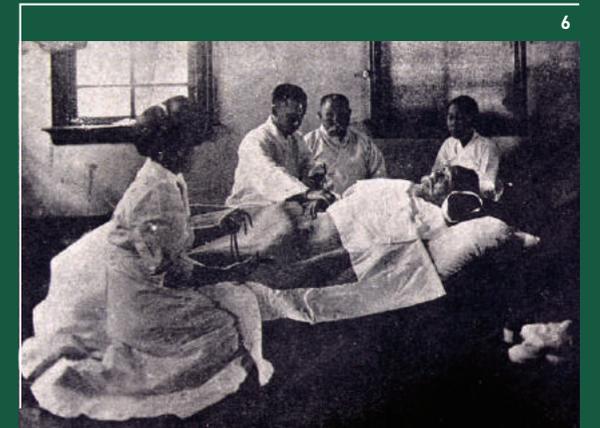
것이 교육임을 깨닫고 경영난에 처한 보성학교와 동덕여학교 등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도 하였다. 이후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국권 회복에 대한 결의를 다지며 천도교단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해 나갔다.

###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잠들다

1919년 민족대표 33인의 지도자로 3·1운동을 주도한 그는 “이번 거사는 조선의 신성한 유업을 계승하고 아래로 자손만대의 복락을 작흥하는 민족적 과업이다. 이 성스러운 과업은 제현의 총의에 의지하여 반드시 성취될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강조하며, 3·1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하도록 당부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기념식을 거행한 뒤 일제경찰에 체포된 그는 서대문감옥에서 투옥 중 병보석으로 출옥하여 치료받다가 1922년 5월 19일 만 61세의 나이로 운명하였다. 그의 유해는 서울 우이동에 있는 봉황각 옆에 안장되었으며,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로를 기리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4



6

- 1 손병희
- 2 천도교 간부들을 연성·수련시키기 위해 설립한 봉황각
- 3 일본 망명시절 동지들과 찍은 사진, 앞줄 오른쪽 두 번째 손병희 (1905)
- 4 국내 최초의 대판형 신문 기관지 『만세보』
- 5 3·1독립선언서
- 6 임종 전 손병희



5

# 남아메리카의 해방자

## 시몬 볼리바르 Simón Bolívar

19세기 초 남아메리카의 독립운동을 지도했던 시몬 볼리바르는 짧은 생애동안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콜롬비아·에콰도르·페루·볼리비아를 스페인 식민통치에서 해방시켰다. 국명·화폐단위·지형·공항 등에 ‘볼리비아’라는 이름이 붙은 것만 보아도 남미인들에게 볼리바르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시몬 볼리바르

### 라틴아메리카 독립의 배경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1702-1713)의 결과 스페인의 왕위는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차지로 돌아갔다. 부르봉 왕가는 낙후된 스페인을 개혁하고자 계몽 전제주의 아래 기존의 시스템을 혁신하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빼앗긴 아메리카 식민지에 대한 시장 장악력을 되찾고자한 부르봉 왕가의 노력은 스페인의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인하여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카를로스 4세(재위 1788-1808)의 무능, 마리아 루이사 왕비와 그녀의 애인 고도이 재상에 의한 국정농단은 아들 페르난도 7세가 주도하는 반란으로 이어졌다. 나폴레옹 군대의 침공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1808년에 페르난도 7세가 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르자, 나폴레옹은 이를 빌미로 스페인 국왕을 폐위시킨 후 자신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스페인의 왕위에 앉혔다. 이에 자신의 왕위를 빼앗긴 페르난도 7세는 아메리카 식민지에 도움을 청하며 대폭적인 자치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실패 후인 1813년 12월 스페인 왕위를 되찾은 페르난도 7세는 식민지인들과의 약속을 헌신짝같이 저버리고 강력한 보수주의자로 돌아서며 왕권을 강화시켰다. 그가 식민지에 대한 세금을 대폭 올림과 동시에 식민지 크리오요(criollo)\* 엘리트들에게 약속했던 자치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지게 된다.

### \*크리오요(criollo)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받던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백인들은 ‘크리오요(criollo)’로 불렸으며, 스페인에서 태어난 사람들인 ‘페닌슐라르(peninsular)’와 계급적으로 구분되었다. 이들 크리오요들은 스페인계 아메리카의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력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페닌슐라르와는 달리 ‘2등 시민’의 대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라틴아메리카 인종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메스티조(mestizo), 인디오, 흑인 등의 ‘갈색인(pardo)’들과 자신들을 구분하며 스페인 본국과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추방 이후 상공업 기반이 붕괴된 식민 모국 스페인은 스페인계 아메리카의 대농장, 광산 등에서 생산되는 수출품들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었다. 또한 식민지에서 소비되는 대부분 수입품의 생산지도 스페인이 아닌 영국과 프랑스 등의 다른 서유럽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페인 왕실이 식민지와 다른 유럽 국가들 간의 직교역을 철저히 금지하자, 식민지의 경제권을 장악한 크리오요 엘리트들의 반발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 시몬 볼리바르와 남아메리카의 해방

스페인계 아메리카의 독립은 크게 멕시코와 남아메리카로 분리되어 진행되었다. 이중 남아메리카 북부지역의 독립을 이끈 것은 ‘해방자(el libertador)’로 불린 시몬 볼리바르(Simón Bolívar)였다. 부유한 크리오요 엘리트 출신인 그는 1783년에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Caracas)에서 태어났으며, 스승인 자유주의자 시몬 로드리게스(Simón Rodríguez)를 통해 장 자크 루소와 몽테스키외 등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이후 프랑스와 미국 여행을 통해 혁명과 공화국 건설의 열망에 사로잡힌 그는 베네수엘라에 귀국한 해인 1807년부터 남아메리카 독립 운동에 인생을 바치게 된다. 스페인계 아메리카의 대표적 지식인 중의 한 명인 안드레스 베요(Andrés Bello)와 또다른 혁명가인 프란시스코 데 미란다(Francisco de Miranda)의 합류로 힘을 받은 볼리바르는 1811년에 베네수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에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크리오요 엘리트들과 페닌슐라르 등이 왕당파를 결성하여 강력하게 저항하자 결국 국외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이후 콜롬비아의 항구도시 카르타헤나(Cartagena)에 잠입한 그는 군대를 재결성한 후, 불과 5백명의 병력을 이끌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 베네수엘라로 진군하였다. 스페인 국왕 페르난도 7세의 식민지에 대한 약속 불이행과 폭정에 대한 반발로 이전과는 달리 많은 크리오요들이 식민지의 독립을 지지하게 된 상황에서 볼리바르의 군대는 1814년, 카라카스에 입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폴레옹 몰락 이후 재편된 스페인 군대가 아메리카 식민지

1822년 시몬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의 과야킬 회담



에 투입되자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국외로 망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자메이카와 아이티를 거쳐 다시 베네수엘라로 잠입한 그는 베네수엘라 평원지대 야노스(llanos)의 목부들인 ‘야네로(llanero)’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나폴레옹 전쟁의 승리 이후 여력이 생긴 영국이 베네수엘라에 지원군을 파견하고, 독립 이후의 이권을 노리는 영국 상인들이 볼리바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자 그의 군대는 이전과는 다르게 강력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그는 1819년, 누에바 그라나다(Nueva Granada)의 수도 보고타(Bogotá) 근처 보야카(Boyacá) 평원에서 스페인 군대를 격파한 후 콜롬비아를 해방시켰다. 이후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를 차례로 해방시킨 볼리바르는 1821년에 그란 콜롬비아(Gran Colombia)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 독립의 결과

볼리바르는 1822년 7월 에콰도르 항구 도시 과야킬에서 남쪽의 아르헨티나·칠레·페루를 해방시킨 산 마르틴(San Martín)과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다. ‘과야킬 회담’이라 일컫는 만남 이후 신생 독립국에서의 군주제 실시를 주장한 산 마르틴은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유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된다. 이후 볼리바르는 자신이 해방시킨 알토 페루(Alto Perú)와 그란 콜롬비아의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알토 페루는 그의 이름을 따라 ‘볼리비아(Bolivia)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하나의 아메리카’를 꿈꾸며 강력한 중앙집권적 공화국을 수립하기 위해 그란 콜롬비아의 독재자로 취임한 볼리바르의 이상은 필연적으로 대농장을 소유한 크리오요 엘리트들의 이익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거대한 꿈은 시대적 한계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힌 그는 결국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1830년 5월 8일, 수도 보고타를 쓸쓸히 떠나게 된다. 볼리바르는 같은 해 12월, 47세의 나이로 쓸쓸히 사망하였고, 그란 콜롬비아는 완전히 해체되었다. ‘하나의 아메리카’를 꿈꿨던 그의 이상은 오늘날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 페루, 볼리비아 등으로 산산조각이 나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의 분열은 미국의 개입을 가져온다고 걱정한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야 말았다. 21세기 현재까지도 크리오요 엘리트들의 후손들이 국가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메스티조와 인디오들은 여전히 소외된 채 주변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 사진 속에 담긴 저마다의 소망

## 2022 독립기념관 사진 공모전 <내가 찍은 봄>

최근 독립기념관은 <내가 찍은 봄>이라는 주제로 사진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기획한 고객홍보부 이세연씨는 “길고 어두웠던 팬데믹을 거쳐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 시기인 만큼 이번 공모전에 기대하는 바가 컸다”고 전한다. 봄처럼 화사한 미소를 가진 그에게 공모전에 관한 이모저모를 들어보고, 심사를 거쳐 수상한 작품들도 함께 만나보자.

### 봄과 일상의 소중함을 선사하다

2022년 <내가 찍은 봄> 사진 공모전은 여러모로 기대하는 바가 컸습니다. 지난 2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했던 사진 공모전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하여 촬영할 때 다소 제약이 있어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접수기간 동안 거리두기 지침이 완화되어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셔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전은 ‘만물이 상생하는 봄’을 주제로 했기에 저뿐만 아니라 참가자분들이 계절과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응모작 총 424점, 수상작 15점

이번 공모전은 총 424점의 응모작을 심사하였고, 시의성·심미성·완성도 등 기준에 맞는 작품 15점(금상 1·은상 2·동상 2·가작 10)을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심사는 독립기념관 내 부서별로 각 한 명씩 이루어진 ‘홈페이지 운영위원회’가 모여 토의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내가 찍은 봄>이라는 주제에 맞게 독립기념관 속 봄을 오롯이 담았는지 검토했으며, 독립기념관이 대개 가족 단위로 방문하는 장소인 만큼 독립기념관 곳곳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가족

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과거와 달리 근래 응모작들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이 증가하여 다양한 구도에서 찍은 독립기념관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 독립기념관 사진 공모전의 역사

2006년 제16회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 행사’가 행정자치부 후원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나라꽃 무궁화 큰잔치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로 시작하였는데, 2008년 제18회부터는 국가상징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상징물(무궁화, 태극기, 애국가)을 주제로 ‘나라사랑 국가상징 큰잔치’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진공모전을 포함시켜 2011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개관 25주년 기념 ‘추억의 사진’ 공모전을 시작으로, 국가상징물 이외에도 관람객을 대상으로 ‘디지털카메라사진’ 공모전을 열었습니다. 한편 홈페이지·SNS 등 이미지 홍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인증샷 이벤트’와 같은 방법도 함께 모색해왔습니다. 이후 아름다운 독립기념관 풍경을 알리기 위하여 ‘봄·여름·가을·겨울’을 주제로 한 공모전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계획

우선 이번 공모전에 응모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독립기념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형식을 고안하여 사진 공모전을 꾸준히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진 공모전 이외에도 독립기념관이 실시하는 많은 이벤트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작품명** <봄 소풍>

**작가명** 최태희  
**심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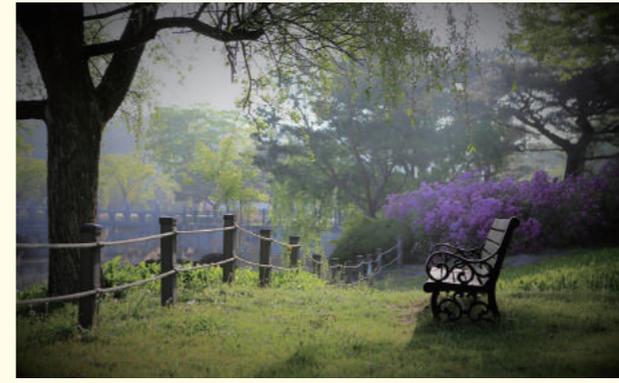
삼대가 독립기념관 잔디에 둘러앉아 봄 소풍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화목해 보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빠가 세 명의 자녀를 돌보고 엄마가 이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봄처럼 따스해 보입니다.



**작품명** <정원 속 겨례의집>

**작가명** 정원진  
**심사평**

백련못 속에 비친 겨례의 집과 그를 둘러싼 개나리와 꽃나무들이 우렁차게 드리워진 소나무와 함께 힘솟는 봄이 찾아왔음을 실감나게 합니다.



**작품명** <마음의 휴식공간>

**작가명** 신용식  
**심사평**

독립기념관 속 봄의 모습이 완연히 담겨있는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그늘진 텅 빈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싶어집니다.



**작품명** <다음 역은 평양역입니다>

**작가명** 문은수  
**심사평**

끊어진 백두대간 철길과 기차를 둘러싼 웅장한 녹음이 인상적입니다. 밀레니엄숲에 굳건히 자리한 철길 위를 기차가 자유통일을 향하여 힘차게 달리는 듯 합니다.



**작품명** <독립기념관의 봄 그리고 일출>

**작가명** 송성찬  
**심사평**

만물이 소생하고 깨어나는 봄을 담은 이 사진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어두웠던 팬데믹을 이겨내고 활기차게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 고교생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다

### 독립기념관, 충청권 4개 교육청과 '온라인 역사교육 한마당' 개최

독립기념관은 지난 6월 11일(토) 충청권 4개 교육청(대전·세종·충북·충남교육청)과 공동으로 온라인 역사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충청권 고교생 역사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2019년 5개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반혜성 연구교수와 독립기념관 홍일교 학예연구사가 '독립운동 속 독립군가', '독립군가를 통해 알아보는 독립운동'을 주제로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직접 제작한 영상을 발표하며 독립운동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충청권 내 총 17개 고등학교 역사동아리 학생과 지도교

사 158명이 참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국내 독립운동사적지 현장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충청권 역사교육 한마당' 온라인 교육 진행 모습



## 순국선열의 나라사랑·국민안전으로 이어간다

### 독립기념관, 소방청과 '나라사랑·국민안전' 업무협약 체결

독립기념관은 지난 6월 13일(월) 소방청과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과 나라사랑 마음 함양'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과거 '조국'을 지키고자 했던 독립운동가의 희생정신과 민족정신을 현재 소방공무원들이 이어받아 나라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방인재 양성을 위한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지원,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을 위한 독립운동사 전시 교육·관람 지원 등이다.

독립기념관과 소방청은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전국 6만여 명의 소방관 모두가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마음을 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독립기념관-소방청 '나라사랑·국민안전' 업무협약 체결식



## 고귀한 민족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잇다

### 독립기념관, 국방홍보원과 '군장병 독립정신 확산' 업무협약 체결

독립기념관은 지난 6월 15일(수) 국방홍보원과 '군장병 독립정신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나라사랑정신 함양 콘텐츠 기획 협력, 독립운동사 전시·교육프로그램 및 국군 휴가 보상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홍보 지원 등이다.

지난 2017년 독립기념관과 국방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군휴가보상 프로그램(방문시 1일 보상제도)'을 시행하여 군 병사들에게 독립정신을 지속적으로 고취해왔다. 이와 더불어 독립기념관과 국방홍보원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약 50만여 명의 군 장병 모두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독립기념관-국방홍보원 '군장병 독립정신 확산' 업무협약 체결식



## 제49기 독립기념관 교원직무연수 참가자 모집

### 여름방학기간 중 교원직무연수 신청 방법

독립기념관은 전국 유·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여름방학 기간 중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연수 개요**  
과 정 명: 한국 근현대사 이해 심화과정(일제 강제동원과 반성 없는 역사)  
연수기간: 2022. 8. 9(화) ~ 8. 12(금), / 총 4일, 24시간  
연수대상: 전국 유·초·중등 교원 40명  
연수방법: 강의, 현장답사  
연수장소: 독립기념관(강의), 전북 군산지역 독립운동사적지 답사  
연수비: 70,000원/1인

**모집 기간**  
2022. 6. 21. (화) 13:00 ~ 선착순 마감  
※이메일(moon@815.or.kr)로만 모집하며, 13시 이후 들어온 이메일부터 접수함  
※선착순으로 정원이 채워질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제출, 담당자가 접수 여부 확인 후 연수비 입금

**신청 순서**  
① 학교장 직인 날인 후 본인 서명하여 제출 (이메일, moon@815.or.kr 로만 접수)  
② 연수비 입금  
연수비: 70,000원  
입금계좌: 신한은행 140-003-517485 (예금주: 독립기념관)  
※참가자 명의로 입금하되, 부득이 타인 명의로 입금 시 담당자에게 연락 (입금인 표기방법 예시: 49기 홍길동)

#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 QUIZ TIME



이번 호 「독립기념관」을 읽고 빈칸을 채워주세요.  
꼼꼼히 읽다 보면 정답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 WHO?



- 1) 1920년 10월 말 장암동 학살을 목격한 의료선교사 스타리 00은 당시 참혹한 진상을 조사·촬영하여 캐나다 토론토 신문에 제보하는 등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6-13페이지 참조)
- 2) 1919년 4월 양양 만세운동 당시 000은 독립선언서 필사본을 버선 속에 감춰 양양지역 청년지도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0-23페이지 참조)

지난 호 퀴즈 정답과 정답자를 공개합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

1. 순종
2. 고문

### 지난 호 퀴즈 당첨자

정한진, 박지경, 천봉준, 전유섭, 이빛으로  
신소진, 오상림, 박지원, 송은혜, 김은상

### 퀴즈에 응모해 주세요.

웹진-독자이벤트 바로 가기

7월 24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시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 엽서도 가능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  
월간 독립기념관 담당자 앞 ※ 이름, 연락처 기재

## Web-zine EVENT



### 「독립기념관」 웹진 '어쩌다 이벤트' 당첨자 안내

독립기념관 웹진 6월호 '어쩌다 이벤트'에는 66, 301, 334번째로 입장한 김희용, 김태훈, 서희운 님이 행운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모바일 커피쿠폰(아메리카노)을 보내드립니다. 웹진을 방문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월간 「독립기념관」

무료 구독 신청 및 해지, 주소 변경 방법 전 화 041) 560-0244 | E-mail sunny@i815.or.kr

# 미국의 독립과 함께 한 우리 운동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with the United States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2022. 5. 19. 목 - 8. 28. 일  
특별기획전시실 I (제 7관)